

일상 공간에 대한 답사 활동의 지리 교육적 함의: G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답사 활동을 사례로

이간용*

Geographical Implications of Fieldwork Activities of Everyday-Life Space: A Case Study on Fieldwork of Students of An Elementary Teachers College

Khan Yong Lee*

요약: 본 연구는 자신들의 일상 공간에 대한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답사 활동에서 나타난 지리 교육적 함의를 고찰한 것이다. 답사 활동에 대한 관찰 결과,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자료 수집의 방법으로서 설문지와 면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수집된 정보를 시각·공간 자료로 변환하거나 가공하는 데 다소 미숙하였다. 그렇지만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답사 활동 경험이나 결과를 장차 초등 지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응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나 과제 활동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초등 예비 교사로서의 독특한 행동 정향(定向)의 하나로 주목된다. 답사 활동에 대한 자기 및 동료 평가의 결과, 일상 공간에 대한 답사 활동이 지니는 지리 교육적 가치를 분명히 인식한 유의미한 경험이었다는 점, 자신들의 일상 공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의미를 반추할 기회가 되었다는 점, 나아가 긍정적인 장소감을 내면화하고 장소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대학교 지리 교육과정에서 답사 방법론 내용을 더욱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주요어: 답사 활동, 교육대학교 학생, 일상 공간, 장소감, 지리 교육적 함의

Abstract: This paper is to elucidate geographical implications of fieldwork activities of everyday-life space of students of an elementary teachers college. The students depended mainly on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for gathering data during fieldwork. They had difficulty in processing data to visual-spatial representation, i.e. map, tables, and diagrams. But they were favourable for applying their fieldwork experiences to teaching the elementary geography. This is viewed as a unique behavioral orientation or desirable attitudes of students of an elementary teachers college. On the basis of the self-assessment and peer-assessment of fieldwork activities, it could be ascertained that the students came to understand the geographical value and significance of fieldwork activities. The fieldwork activities made them to heighten their interest of everyday-life space, and so to internalize positive their senses of place, to enforce their identities of pla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 need to develop a systemic contents for fieldwork activities in geography curriculum of elementary teachers colleges.

Key Words: fieldwork activities, students of elementary teachers college, everyday-life space, sense of place, implication for geographical education

이 논문은 2016년도 공주교육대학교 교내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Gongju University of Education), kylee@gju.ac.kr

1. 서론

야외 답사(fieldwork)가 지리학 연구 및 지리 교육의 방법론적 요체 중의 하나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흔히 야외 답사 없는 지리는 실험 없는 과학에 비유되곤 한다. 왜냐하면 ‘야외’란 학생들이 경관, 장소, 사람과 사안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실제 환경에서 지리적 기능을 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는 지리 실험실이기 때문이다(Bland *et al.*, 1996, 165). ‘야외 답사는 지리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고, 모든 것을 황홀한 3차원 입체 세계의 맥락 속에 들어오게 하며, 말 그대로 지리가 우리 주변의 세계를 어떻게 조형하는지를 눈으로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Parkinson, 2009, 1)’는 K. Humble¹⁾의 설과는 야외 답사의 지리 교육적 효과와 가치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학생들은 답사 활동을 통해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세계에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지리학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Sauer, 1956). 답사 활동은 지리의 두 가지 측면, 곧 지리 지식과 지리 연구 방법을 통합하는 최선의 직접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답사 활동은 지리 교육에서 별도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Baily, 1974, 184; Lidstone, 1988, 59). 그런 까닭에 서아프리카 5국(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의 대학입학시험 지리 과목에서는 답사 활동이 지리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기도 하다. 곧, 촌락 혹은 도시의 토지 이용, 시장 조사, 교통량, 통근 패턴, 토양 침식 등 5가지 주제 중 하나에 대한 답사 활동을 단위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총점의 25%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WASSCE/WAEC, 2015).

이상과 같이 지리 교육에서 답사 활동이 지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에 국내의 지리 교육학 분야에서도 답사 활동과 관련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주로 문화 유적지나 학술적 장소 등과 같이 학습자들의 일상적 삶과는 거리가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구조화된 지도안이나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는 활동을

소재로 삼은 연구가 주를 이루어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교수자 중심적이고 관찰 지향적인 답사 활동도의 미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들로 하여금 답사의 본질적 가치를 경험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일상 공간에서 탐구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답사 활동을 실천해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생활 세계를 지리적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답사 활동을 제공하여 그 지리 교육적 함의를 고찰하려는 작업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중등학교나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답사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에 초등 교사 양성과 관련하여 독특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답사 활동에 관한 연구는 희소한 편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일상 공간에 대한 탐구적 답사 활동에서 나타나는 실천적 특성과 지리 교육적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서 첫째, 일상 공간에 대한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답사 활동에서 나타나는 실천적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둘째 답사 활동에 대한 자기 및 동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 공간의 답사 활동이 지니는 지리 교육적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찰법과 자료 분석법이 동원된 사례 연구이다. 사례 연구의 시기와 대상은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G 교육대학교 사회과 교육과 4학년 학생 29명이 7개 조로 나누어 행한 답사 활동이었다. 이를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연구의 편의와 함께, 무엇보다도 지방 소도시에 소재하는 G 교육대학교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장소 정체성 문제에 대한 교육적 처방을 모색해보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본 답사 활동은 논문 작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설계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논문에 제시된 자료들은 ‘있는 그대로’의, 곧 생태적 타당도가 높은 자료라는 점을 밝힌다.

본 연구는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일상 공간에 대한 탐구적 답사 활동에서 나타나는 실천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지리 교육적 함의를 살핀 최초의 연구로서

교육대학교의 지리 교육과정 개발에 긍정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리 교육의 측면에서 답사 활동에 대한 이론적 및 실제적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에 여기서는 국내의 지리 교육 관련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대략 답사 활동의 지리 교육적 가치와 의미, 답사 활동의 기법과 방법론, 답사 활동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의 실천과 효과, 그리고 학술적 답사를 위한 장소 소개 및 코스 개발 등 대략 네 가지로 범주화된다.

먼저 답사 활동의 지리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다룬 연구부터 살펴보자. 류주현(2004)은 답사 활동이 다양한 학습 주제에 적용가능하고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통찰력, 도해력 및 지도 제작 능력, 사회성 등을 종합적으로 길러 줄 수 있다고 보고, 사범대학의 지리교육과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방법론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 특히 답사 활동을 체험한 교사가 장차 중등 교육 현장에서 이를 다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리 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고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박철웅(2013)도 답사 활동의 의미와 의의 등 여러 지리 교육적 함의를 고찰하고, 그것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상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이어 답사 활동을 위한 기법이나 방법론의 제안을 주제로 삼은 연구가 있다. 이종원 등(2007)은 기존의 정보 전달 형식에 더하여 학생 활동 및 수행 과제를 포함한 워크북 형태의 답사 자료집을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확인한 바 있다. 박철웅(2014)은 도시 답사 활동에서 기능과 구조 이해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다감각적 경험에 의한 질적 접근 방법을 예비 교사들에

게 시도한 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도시의 의미와 상징을 독해하고 표현하는 활동의 도입을 역설하였다. 이 연구는 이른바,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말하는 감성 지리 교육을 실천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종원(2014)은 영국의 초·중등학교 지리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답사 활동의 전반적인 체계를 소개하면서 그 성공적인 활동의 필수 조건으로서 관련 주제 상호간의 신뢰, 지역 사회 및 전문 학회의 지원, 실제적인 학습에 대한 공감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오선미·이종원(2014)은 국내 중등학교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리 답사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에서 야외 조사 기술의 습득과 같은 지리 과목의 특성을 반영하는 목표보다는 공간적 경험의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진학(2014)은 스마트폰과 최신의 지리 공간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스마트 지리 답사의 효과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유용성과 답사 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송언근(2015)은 지리 교사를 대상으로 탐구적 답사를 위한 연수 과정안을 구안한 바 있는데, 효과적인 탐구적 답사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 인식, 예비 조사의 실행, 반성적 평가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송언근(2016)은 탐구적 답사 활동에서 사전 조사가 답사 활동의 심리적 및 실행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면서 답사 활동에서 사전 조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답사 활동을 활용한 지리 교수·학습 방안의 실천과 효과를 고찰한 부류의 연구가 있다. 허은경(2002)은 프로젝트 학습을 활용한 지역 조사 학습 모형을 적용한 후에 그 효과를 검증해낸 연구에서 지역 조사 프로젝트 학습은 도해력, 의사 전달력, 집단 참여 등 다양한 지리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신장하고, 더불어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등 가치·태도 면에서의 행동 변화를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박철웅(2004)은 답사 경험, 지형 연구, 그리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형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야외에서 직접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는 지리과 야외 학습 지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임은진(2011a)은 중등학교 현장에 적합한 지리과 야외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 한 후에 그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야외 학습 활동에 대한 의의에 대하여 지리 학습, 여가, 사회적 관계 순으로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연구에서 임은진(2011b)은 지리·역사 공동의 답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면담과 학습자 태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습 효과의 증대 및 진이력 확대 등의 학습적인 측면보다는 여가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 학습자들은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답사 활동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재섭(2013)은 서울 북촌을 사례로 장소의 지리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을 연계하여 학습하고, 학습한 장소를 직접 답사함으로써 장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고찰한 바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술 답사 활동을 위한 장소 소개 및 코스 개발을 주제로 삼은 실용적 연구가 있다. 박희두(2006)는 자연 지리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주시 일대의 자연 지리 야외 학습장을 소개한 바 있고, 류주현(2012)은 대전의 근대적 정체성, 장소 자산에 대한 관심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대전 원도심 중심의 답사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의한은 강원도 DMZ 지오파크의 한 부분인 화천·양구의 지오사이트 답사 코스 개발(2014), 평화지역 지질공원의 한 부분인 인제의 지오사이트 답사 코스를 개발하고(2016), 이를 고등학교에 보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이민부 등(2014)는 미호천 인근에 자연 지리 학습장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 지리 답사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지형과 삶의 관계를 이해하며 해석하려는 긍정적인 태도가 함양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가 보여주듯이 답사 활동에 관한 지리 교육적 연구들은 다양한 주제에 걸쳐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발견된다. 우선, 연구를 위한 답사 활동의 사

례 장소로서 학습자들의 일상적 삶터보다는 문화 유적지나 학술적 장소 등 학문적, 교과적, 역사 문화적 가치가 공인된 곳들이 주로 선정되었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학습자 활동을 분석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활동은 부득불 지리 학습의 선지식 확인이나 이해, 혹은 기성의 해석이나 가치에 대한 수용적 강화 학습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곧, 답사 활동을 통해 장소에 대한 진정한 조사나 탐구보다는 선지식 확인을 위한 견학적 답사 활동(Bland *et al.*, 1996)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온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특정의 교수·학습 모형이나 프로그램, 혹은 구조화한 지리 학습 지도안을 답사 활동에서 구현하고 그 효과를 구명하려는 시도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교수·학습 과정에 교수자의 과도한 개입과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 약화라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답사 활동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를 추구하는 학습 활동을 소재로 삼기보다는, 답사 활동을 여전히 ‘모종의’ 학습을 위한 배경 제공이나 하위 도구 정도로 인식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는 점이다.

이처럼 기존의 답사 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문화 유적지 위주이고, 교수자 중심적이며, 관찰 지향적인 활동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었다. 특히 답사 활동을 위한 장소 선정에서 학습자들의 삶과 다소 괴리된 장소가 주를 이루면서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일상 공간에 지리적 의미를 부여하고 탐구하는 활동에 기초한 연구는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대부분의 연구가 중등학교 학생이나 사범대학교 지리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은 답사 활동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고, 초등 예비 교사로서의 교육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3. 일상 공간 답사 활동의 실천적 특성 및 평가

1) 답사 주제 및 활동 내용

본 답사 활동은 G 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4학년 심화과정의 전공 필수인 ‘사회과지리교육론’ 강의의 일환으로서 2015년 4월에 시행되었다. 그 의도는 4년 여 대학 생활을 영위한 자신들의 장소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 문제를 지리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곧, 자신들의 일상 공간에 대한 답사 활동이 학생들에게 있어 개인적, 지리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생산하게 될 것인지를 확인해보려는 취지였다. 아울러 본 답사 활동에 관한 경험이 장차 초등 지리 학습에 활용되어 초등 지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여기서 일상 공간이란 강의, 숙식, 오락 및 쇼핑, 모임, 휴식 등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지표 범위로서 구체적으로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4km 이내의 시가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의도의 배경에는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 지나는 지리 교육적 한계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G 교육대학교가 지나는 입지적 한계와 관계가 있다. 지방 소도시에 입지하고 있는 G 교육대학교는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그

런데 개인의 정체성 확립은 일정 부분 장소 정체성에 기반한다고 볼 때(임은진, 2011c, 229), 이 같은 소도시 환경은 학생들의 장소 정체성 약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방 소도시가 지니는 도시 기능적 한계, 특히 문화 오락 기능의 미비는 그에 대한 욕구가 강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에게는 삶의 질 문제를 넘어, 상위의 정신적 영역인 장소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지리 교육적으로 해결할 것에 대한 방안 마련의 일환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답사 활동의 슬로건을 ‘공주 생활 마지막 해에 남기는 나의 발자취!’로 정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답사 장소 및 주제는 G 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대략 동심원적으로 선정되었고, 표 1에서처럼 답사 활동을 위한 주제만을 제시하고 나머지 여러 활동은 조별로 자기 주도적으로 구안하도록 하였다. 주제의 선택은 조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정하였다.

본 답사 활동은 2015년 4월 첫째 주에 주제가 배정되고, 이어 조별 답사 활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리하는 시간을 거쳐 그 결과를 4월 말~5월 초에 걸쳐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組)는 4인1조의 총 7개조로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인 협동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곧, 학생들의 성적, 성격, 성별을 고려하여(정문성 등, 1999,

표 1. G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답사 활동 주제

조	주제	답사 활동 주제
1		공주 초등학생들의 장소감 특성
2		학교 앞 계민천의 변천과 경관 특성
3		공주의 아름다운 골목길 선정
4		산성 전통 시장의 기능체 분포 특성
5		시내 중앙 대로변의 기능체 입지 및 경관 특성
6		공주와 주변 도시 간 공간적 상호작용 특성
7		공주의 역사지리적 변천 과정

1. 나의 성별, 학번, 이름	(여) 남 201203()번 () () ()				
2. 나의 성격을 스스로 진단해보면?	<table border="1"> <tr> <td>활동적 진취</td> <td>②</td> <td>3</td> <td>신중 소극한주</td> </tr> </table>	활동적 진취	②	3	신중 소극한주
활동적 진취	②	3	신중 소극한주		
3. 지난 학기 평균 학점?	(4.09)점				
4. 초등 지리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한 것 한 가지만!	5-6학년으로 4학년 계획교육 형태가 어떻게 되나?				
5. □□한테 한마디~	교수님 4학년때 수업 시간과관련! 교수님앞으로 듣게 되어서 정말 기대되네요! 한학기동안 열심히 할게요~				

그림 1. 답사 활동을 위한 조 편성 준비 자료

35-36), 연구자가 작성한 조 편성 초안을 바탕으로 학과 대표와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그림 1). 이와 관련하여 2조의 경우 “완전한 이질 집단 구성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었던 우리 조, 답사 전에 세 번의 모임과 3시간 30분의 현장 답사에서 막힘없이 무사히 조를 마침!”이라는 소감 멘트를 술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답사 활동의 전반적인 계획과 조별 사전 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과 관련하여 최소한 차례는 지도 교수와 상의하도록 하여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였다.

그럼, 답사 활동의 주제와 활동 내용을 각 조별로 간략히 제시해보기로 한다. 먼저 1조의 경우, 조사 주제는 공주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고장에 대하여 어떤 장소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주제를 제시한 의도는 장소감(sense of place) 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초등 예비 교사로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고장관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과 함께 당시 필자가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작업에 참여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성취기준에 ‘장소감’ 개념을 도입하려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1조의 학생들은 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캠퍼스를 공유하는 부설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4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걸쳐 설문 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자기가 얼마나 공주 사람인지 수치화하기, 공주를 대표하는 세 곳 제시하기, 친구나 일가친척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 제시하기, 공주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을 때의 학생 반응, 공주에 대한 학생 나름의 정의 내리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의 발표 과정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영화 ‘어바웃 타임>About Time’의 한 장면을 통해 지하철역이 어떻게 누군가의 ‘장소’가 되는지를 제시한 점, 장소감 고양을 위한 지도안을 창안하여 제시한 점 등이었다. 조사 결과로서 고향으로 갈수록 고장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진다는 점, 공주를 대표하는 장소로서 공산성과 무녕왕릉 등 관광 명소가 꼽힌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주의 정확한 위치 제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공주의 대표 장소를 제시하는 데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

는 가운데 고향의 경우 유적지를 제시함으로써 사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제시한다는 점 등을 파악해 내었다.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고향에 대한 감성과 애정을 형성하기 위한 학교, 가정, 지역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2조의 경우, 조사 주제는 캠퍼스 전방을 지나 시가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제민천의 변천 및 경관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주제의 제시 의도는 G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일상적 생활 무대인 제민천에 대한 관심 및 의미 부여의 기회와 아울러 이른바, 4대강 사업이라는 국가적 사업이 일상 공간의 조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은 2015년 4월 6일에 공주 시청을 방문하여 제민천 생태 조성 사업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어 간단한 설문지와 함께 2015년 4월 9일에 제민천의 시원지에서 금강 합류점까지 약 4.21km에 달하는 제민천 종단 답사를 실행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유래, 전설이나 옛 이야기 등 제민천의 과거 지리, 제민천의 구간별 경관 변화, 제민천 생태 복원 사업 내용, 제민천의 무명교에 대한 이름 부여 공모전 등이었다.

답사 결과의 발표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생태 복원 사업의 성공 사례와 대비하여 제민천 생태 복원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 점이였다. 조사 결과로서 제민천이 도로명 주소, 상호, 그림 지도 등에 활용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 제민천 중·상류 구간은 기와 무늬 장식이나 전설, 과거 사진 등 공주의 이미지를 살리려 노력한 점이 확인되거나 하류로 갈수록 산책로만 조성해놓아 별다른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 이름 없는 다리 8개 중에서 학교 정문 앞의 무명교 이름으로서 ‘웅작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3조의 경우, 조사 주제는 전통적인 지방 도시인 공주에 잔존하는 여러 골목길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목길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이 주제를 제시한 의도는 일상 공간에서 ‘길’의 가치와 사소해 보이는 지리적 존재에 대한 의미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은 2015년 4월 9일에 학교 인근의 한 전통 주거

지를 대상으로 실제 답사와 골목길 통행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너비, 외관, 곡률도 등을 기준으로 골목길의 분류, 아름다운 골목길 추천 및 더 나은 골목길 모습의 제시 등이었다.

조사 결과의 발표 과정에서 주목을 끌었던 점은 아랍에미리트나 베트남, 폼페이 등 세계 여러 곳의 골목길 특성과 문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난 대구의 뽕나무 골목에 대한 소개 장면이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골목길이 존재한다는 점, 골목길의 폭은 대로변일수록 넓고 주택가일수록 좁다는 점, 경계를 위한 담과 미관을 위한 담으로 대분될 수 있다는 점, 골목길 바닥의 재료가 다양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 조의 학생들은 공주의 아름다운 골목길로서 '잠자리가 놀다간 골목길'과 '영명학당 2길'을 선정하였다.

4조의 경우, 조사 주제는 공주의 대표적인 전통 시장인 산성 시장의 기능체 입지 특성을 조사하는 활동이었다. 이 주제를 제시한 의도는 전통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통 시장의 기능체 입지에서 공간적 질서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은 2015년 4월 9일에 실제 답사를 실시하였는데, 먼저 시장 상인회를 방문하고 이어 임의의 한 블록을 선정하여 점포의 업종별 입지 특성을 조사하는 과정을 밟았다.

조사 결과의 발표에서 주목을 끌었던 점은 공주, 홍성, 태안의 시장을 비교하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점포가 비율 면에서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함으로써 전통 시장의 업종과 지역 특성 간의 관계를 밝힌 것이었다. 주요 조사 결과로서 산성 1길에는 농산물/청과 및 수산물, 산성 2길 주변에는 식당/음식, 3길 주변에는 침구/주단, 생활 용품, 생활 서비스, 산성 4길 주변에는 의류/잡화가 특화되어 있다는 점, 농산물은 공주 시장, 축산물은 홍성 시장, 수산물은 태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점, 상호 간 판의 디자인이 획일적이라는 점, 지역 특산물 판매점의 홍보 부족에 따른 주부 맞춤형 코스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었다. 아울러 동네 시장의 업종별 분포 특성과 공간적 질서를 밝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창

안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5조의 경우, 조사 주제는 시내 중앙대로변의 기능체 입지 및 경관 특성을 조사하는 활동이었다. 이 주제를 제시한 의도는 공주 시민들의 주요 소비 공간인 중앙대로변 상가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질서를 파악해보고, 그것을 통해 일상 공간에서 지리적 의미를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은 2015년 4월 9일에 중앙대로 양측의 416개 상점의 분포 패턴 및 경관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 조는 상가 분포와 해당 상가 주변 장소 특성 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조와 차별화되었다.

조사 결과의 발표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SOLO식 탐구 모형을 활용하여(이간용, 2014, 191-209) 사실 확인-패턴 파악-관계 탐색-외연 확장의 단계에 따라 기능체의 분포나 입지를 설명하였다는 점이었다. 주요 조사 결과로서 중앙대로변에는 의류와 의류 업종이 특화되어 있다는 점, 업종별로 뚜렷한 분포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의류·잡화점은 큰 거리거리 일대에 집적, 의류는 산성 시장 부근에 집적, 금융·미용·편의점 등은 분산)과 이는 소비 연령층 및 교통 접근성과 관련이 높다는 점, 업종별로 입지의 수직적 분화가 나타난다는 점 등이었다. 아울러 이들은 KTX 공주 역사 앞 상가를 대상으로 입지 선정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창안하기도 하였다.

6조의 경우, 조사 주제는 공주와 주변 도시 간의 공간적 상호작용 특성을 조사하는 활동이었다. 이 주제의 제시 의도는 지리 학습에서 추상성이 높은 기능 지역이나 공간적 상호작용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고, 초등 지리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이동' 개념 관련 교수 활동의 아이디어를 경험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은 사전 준비 및 예비 조사 활동을 거친 후에 2015년 4월 8일 17시 53분부터 18시 23분 동안에 공주대교 사거리를 통과한 차량 2,776대를 대상으로 방향별 및 차종별 교통량을 실제 조사하였다. 아울러 이 조는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각 노선별 버스 491편을 대상으로 주변 도시 간 공간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분석

하여 우선도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조사 결과의 발표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근 산과 여수에 각각 살고 있는 동료가 귀향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호남고속철도 개통(2015년 4월 1일) 전후로 상세히 비교함으로써 교통수단의 영향을 실감나게 설명하였다는 점, 공주와 대전의 버스 노선을 비교하여 도시별 공간적 상호작용의 범위 차이를 비교하였다는 점 등이었다. 주요 조사 결과로서 사거리의 방면별 교통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동편 27%, 서편 29%, 남편 24%, 북편 20%), 차종별 교통량에는 큰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승용차 89%, 트럭 7%, 버스 3%, 오토바이와 특수차 각각 1%), 6시 이후 교통량이 급증한다는 점, 노선별 교통량에서 편차를 보인다는 점(대전권 20%, 충청권 57%, 수도권 23%, 기타권 0%)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7조의 주제는 공주의 역사지리적 변천 과정을 조사하는 활동이었다. 이 주제를 제시한 의도는 역사적 고도(古都)라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공주의 구체적인 역사지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은 2015년 4월 9일 전후로 인터넷과 문헌 자료 중심의 실내 조사에 국한함으로써 본래 기대와는 다른 조사 방법을 취하였다. 이들이 참고한 주요 문헌은 장길수의 ‘공주의 歷史地理的 考察(1990)’이라는 논문이었다.

조사 결과의 발표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사회과 교육과 심화과정 강좌인 ‘백제사특강’의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청자들의 호기심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과 공주의 과거 지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한 점 등이었다. 주요 조사 결과로서 교통수단의 변화와 공주의 위상 변화 간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조선시대 관아와 일제강점기 관청 자리를 제시하였다는 점, 일제강점기 대전으로의 도청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엄청난 저항 운동이 있었다는 점 등이었다.

2) 답사 활동의 실천적 특성 및 문제점

이상과 같은 조별 답사 활동의 내용을 바탕으로 G

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학생들의 답사 활동에서 나타나는 실천적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학생들이 답사 활동을 위해 활용한 조사 방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문제점이다. 학생들은 답사 활동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다양함에도 조사 주제와 상관 없이 주로 설문지나 인터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았다는 점이다. 설문지와 인터뷰는 초등학생들의 장소감 특성 조사, 제민천의 특성 및 경관 조사, 아름다운 골목길 선정을 주제로 삼았던 3개조에서 활용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초등학생들의 장소감 특성을 조사한 1조의 경우는 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는 조사 주제와도 부합함으로써 답사 결과 발표 시에도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호평과 함께 그 방법적 타당성과 기법을 여러 학생들이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2조의 제민천 조사와 3조의 골목길 조사 활동에서도 설문지와 인터뷰가 동원되었다. 이 두 주제의 경우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사실(facts) 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관찰(observation)이나 측정(measurement) 등의 도구가 더 적절함에도 설문지나 인터뷰를 활용함으로써 주제와 다소 거리가 있는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는 답사 주제 및 답사 활동에 대한 경험 부족에 기인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견학 성격의 답사보다는 탐구적 성격의 답사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하여 타당도 높은 도구의 선정에 대한 반성적 탐색의 과정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조사 활동에서 설문지와 인터뷰가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학생들도 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당도 높은 설문지 작성 방법이나 효과적인 인터뷰 기법에 대한 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지리 답사에서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수집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관찰과 측정,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방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Daugherty, 1989, 9),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7조의 역사지리적 변천 조사 활동의 경우, 공주에는 학생들이 평소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지만

의미있는 여러 유적과 장소가 존재함에도 문헌 조사로 국한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이러한 유형에 대한 답사 경험의 부족과 함께 공간적 맥락이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우리의 역사 교육도 그 원인(遠因)의 하나일 것이다. 7조의 주제와 관련하여 비석, 탑, 전설 유래지, 절터, 관아 터 등과 같이 역사적 장소를 실제로 찾아가보도록 사전 지도가 있었음은 물론이었다. 따라서 이른바, 진정한 의미의 통합 사회과교육을 위해서는 초등 예비 교사 시기부터 ‘현재의 역사가 지리이고 과거의 지리가 역사’라는 점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둘째, 답사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과 결과물의 활용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답사 활동 경험을 초등 지리 학습에 활용하거나 응용하려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초등 예비 교사로의 바람직한 교수자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곧, 답사 활동과 관련하여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3개조에서 자신들의 답사 경험이나 결과를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창안하여 제시하였다. 고장에 대한 장소감 파악을 소재로 삼은 1조의 과정안, 전통 시장의 입지 특성을 소재로 한 4조의 과정안, 상가 입지 선정을 소재로 삼은 5조의 과정안이 그것이다(그림 2). 이는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나 과제 활동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행동 정향(behavioral orientation)의 하나로서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를 통해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답사 활동이 지니는 미래적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답사 활동에서 직면하거나 발견된 문제의 해결 측면에서 나타는 특성이다.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답사 활동 중에 직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기존의 지식,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상호 심층 토의 등을 적절히 동원함으로써 적극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7조의 역사지리적 변천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제 4 문주왕’ 편을 활용하여 공주의 역사성을 부각했던 점이 그 사례이다. 또한 5조의 중앙대로변 기능체 입지 및 경관 특성 조사 활동에서 SOLO 모형의 적용을 통해 기능체의 분포, 패턴, 이유, 관계의 4단계 측면에서 조사 활동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OLO 모형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한 사례도 있다(그림 3).

그리고 6조의 도시 간 공간적 상호작용 특성 조사 과정에서는 일제강점기 자료인 ‘忠南産業誌(1920)’를 찾아내 충남의 군별 교통수단 현황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공주대교 사거리에서 교통량을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조원 간 상호 심층 토

사회과 교수·학습 익안				
가. 한시 교수학습 개요				
일시	2015. 4. 16 (목) 1교시 (대 상)	2학년 3반	지도교장	박윤미
단원/차시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4) 소문난 40년	장 소	3-3교실	
학습목표	유형 고장의 특징을 잘 나타낸 장소를 설명하고 유래 고장을 설명 할 수 있다	활동 유형	조리 보고 학습 및 발표	초·중·고등
교수 자료	교시 1학년답사후 한 영상, 공주시의 역사 장소 사진, 공주시 지도			
나. 지도 과정				
	*초기교육 -TV로보고할 '1박2일' 같은편 영상 자료를 제시한다. -“박진보 선생수가 공주의 이름을 소개해주시나요?” -“박진보 선생수가 어떤 장소를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습 목표 확인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장소를 살펴보고 그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활동 안내 [활동 1]공공물 대표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조사해 온 것 발표하기 [활동 2]공공물 대표하는 곳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곳이 어디를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을까요?” *활동을 만들어 각각 선정할 장소를 소개하고 그 이유를 발표합니다. -“선정할 장소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생각해봅시다.” *활동이후 우리 지역의 환경이므로 되어보기 -“오늘까지 나는 의견을 종합하여 공주시의 관광 코스 지도에 그려봅시다.” -“만약 관광객이 ‘금강이 공주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학습 내용 정리 -“공공물 대표하는 장소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나, 친구들에게 듣고 자신에게도 새로운 의미가 생긴 장소가 있었나요?” -“박진보 선생수가 선정한 장소는 박진보 선생수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회과 교수·학습 과정안				
대 상	6학년 3반 학생 29명 (남 6, 여 23명)	장 소	6학년 3반 교실	
단 원	공화민 생활 모습	차시	8차시	중·고
본시주제	유형 고장의 특징을 잘 나타낸 장소를 설명하고 유래 고장을 설명 할 수 있다	학습유형	조리 및 조사	
학습목표	유형 고장의 특징을 잘 나타낸 장소를 설명하고 유래 고장을 설명 할 수 있다			
단기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10분	10분
준비 사항	*초기교육 -TV로보고할 '1박2일' 같은편 영상 자료를 제시한다. -“박진보 선생수가 공주의 이름을 소개해주시나요?” -“박진보 선생수가 어떤 장소를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습 목표 확인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장소를 살펴보고 그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활동 안내 [활동 1]공공물 대표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조사해 온 것 발표하기 [활동 2]공공물 대표하는 곳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곳이 어디를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을까요?” *활동을 만들어 각각 선정할 장소를 소개하고 그 이유를 발표합니다. -“선정할 장소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생각해봅시다.” *활동이후 우리 지역의 환경이므로 되어보기 -“오늘까지 나는 의견을 종합하여 공주시의 관광 코스 지도에 그려봅시다.” -“만약 관광객이 ‘금강이 공주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학습 내용 정리 -“공공물 대표하는 장소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나, 친구들에게 듣고 자신에게도 새로운 의미가 생긴 장소가 있었나요?” -“박진보 선생수가 선정한 장소는 박진보 선생수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회과 교수·학습 과정안				
대 상	2015. 4. 23 (목) 1교시 (09:00-09:40)	장 소	6학년 3반 교실	
단 원	6학년 3반 학생 29명 (남 6, 여 23명)	차시	수업지	강준호, 김소현, 조희수, 홍현수
본시주제	일제강점기 문화유산의 유산으로서의 가치	학습유형	조사 및 토의	
학습목표	상가의 위치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단기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 사항	*초기교육 -TV로보고할 '1박2일' 같은편 영상 자료를 제시한다. -“박진보 선생수가 공주의 이름을 소개해주시나요?” -“박진보 선생수가 어떤 장소를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습 목표 확인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장소를 살펴보고 그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활동 안내 [활동 1]공공물 대표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조사해 온 것 발표하기 [활동 2]공공물 대표하는 곳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곳이 어디를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을까요?” *활동을 만들어 각각 선정할 장소를 소개하고 그 이유를 발표합니다. -“선정할 장소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생각해봅시다.” *활동이후 우리 지역의 환경이므로 되어보기 -“오늘까지 나는 의견을 종합하여 공주시의 관광 코스 지도에 그려봅시다.” -“만약 관광객이 ‘금강이 공주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학습 내용 정리 -“공공물 대표하는 장소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나, 친구들에게 듣고 자신에게도 새로운 의미가 생긴 장소가 있었나요?” -“박진보 선생수가 선정한 장소는 박진보 선생수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림 2. 답사 경험을 활용한 초등 지리 교수·학습 과정안 창안 사례



그림 3. SOLO 모형을 활용한 과제 해결 과정의 사례

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그림 4).

여기에 2조의 경우 제민천의 특성과 경관 조사 과정에서 제민천 여러 다리 중 그것도 학교 바로 앞의 다리에 이름이 없다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다리 이름 공모전을 기획한 점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다(그림 5). 이는 일상적 존재에 대한 의미화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여러 학생들이 답사 활동의 의의와 가치를 공유하게 된 사례의 하나로 평가된다.

넷째, 답사 활동의 결과 정리 및 발표 측면에서 관찰되는 특성과 문제점이다. 학생들은 수집한 정보를 가공 처리하여 시각·공간 자료로 표현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미숙하였으나, 그들의 발표 역량은 탁월했다는 점이다. 답사 활동 보고서의 경우, A4 용지로 최소 12쪽에서 최대 25쪽까지 다양한 가운데 평균 16쪽 분량으로 작성되었는데, 문제는 7개조 중 6개조가 답사 활동의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하는 데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수집된 정보를 주제도나 도표 등과 같이 시각·공간 자료로 변환하거나 표현하는 데 전반적으로 미숙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곧, 보고서에는 답사 활동의 과정을 증명하기 위한 사진이나 조사 결과의 핵



그림 4. 교통량 조사 결과에 대한 상호 심층 토의 장면 사례

심적 내용임에도 완성도가 낮은 한두 개의 도표만이 제시되었을 뿐이었고(그림 6), 대부분의 답사 보고서 내용이 텍스트 형식으로 처리되거나 정리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초·중등학교의 지리 학습에서 도해력(graphicacy) 학습이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결손을 보충할 학습 기회가 부재하였던 결과로 해석된다. 주지하다시피 지표 공간을 다루는 지리 학습에서는 지리의 언어로서 도해력 학습이 강조되어 왔다(Balchin, 1972; 서



그림 5. 제민천 다리 이름 공모전 활용 사례

태열, 2005, 68-72; 이경한, 2016, 176-177; 남상준, 1999, 221-242; 조철기, 2014, 280-297).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통적인 도해력 학습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여러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이종원, 2011). 왜냐하면 도해력은 지리 학습만의 정체성 있는 고유한 영역이자, 실제 사회에서도 긴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그 효용 가치가 높은 역량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즉시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답사 보고서 작성 이전에 공간 자료를 해석하거나 변환할 수 있는 사전 지도가 제공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반면에 답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구두 발표나 설명은 전반적으로 매우 우창하였다. 이는 각 조에서 발표력을 소유한 학생이 발표자로 추천되었다는 직접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발표 수업에 대한 경험이 다수 쌓여왔다는 점도 그 배경일 것으로 보인다. 발표 자료로서는 PPT 화면을 공통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조별로 최소 37컷에서 77컷까지 다양하여 50분간 진행된 발표 시간 중에서 평균 54컷의 PPT 화면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서는 자료 구성 방식, 설명 자료의 취사선택에 대한 사전 조율이나 지도가 필요한 측면도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렇듯 학생들의 구두 발표 역량이 탁월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보통 교육이 논술이나 발표 등 언어적 역량의 함양에 경도되어 있는 대신에 지도화나 도표화 능력 등과 같은 공간적 역량의 함양은 도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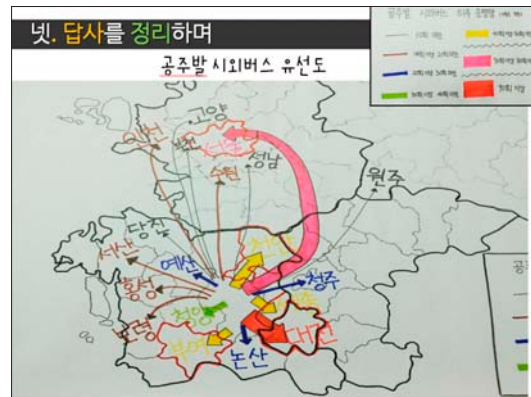


그림 6. 유선도 작성의 사례

한 측면과는 무관한 것일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4. 일상 공간 답사 활동의 지리 교육적 의의

본 답사 활동이 지니는 지리 교육적 의의를 파악해 보기 위해 자기 및 동료 평가 방식을 활용하였다. 평가 시기는 답사 활동에 대한 각 조별 결과 발표가 종료된 시점이었으며, 자기 평가는 해당 주제의 조원을 대상으로, 동료 평가는 해당 주제의 조원을 제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 자기 평가에 나타난 답사 활동의 의의

학생들의 자기 평가를 위한 평가지는 자기 조의 답사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과정별 만족도를 5등간 척도로 측정하고 수치적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답사 활동에 대한 장·단점과 소감을 묻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그림 7). 표 2는 학생들의 자기 평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2에서처럼 답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 평가 결과, 활동 전반에 대한 평균 만족도 4.57점, 과정별 평균 만족도 4.50점, 전체 평균 만족도는 4.52점으로 학생들은 모든 항목에서 평균 4.5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표하였다. 이는 자신들의 답사 활동에 대하여

큰 심리적 만족감과 함께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이를 토대로 일상 공간에 대한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답사 활동은 그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개인적, 지리 교육적으로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경험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더욱 뒷받침하는 것이 본 답사 활동의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여러 의견 진술이었다. 표 3은 그 진술 내용 중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키워드를 정리한 목록이다.

표 3에서처럼 빈도수 1위 키워드는 ‘의미 있는 과제’로서, 이는 높은 만족도 점수와 함께 본 답사 활동이 학생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활동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여기에 ‘재미있는 경험’, ‘즐거운 답사’, ‘보람’이라는 키워드의 빈도수까지 고려한다면 참여 학생의 2/3 이상이 자신들의 일상 공간을 조사, 정리, 발표한 활동에 대하여 스스로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2위 키워드는 ‘학우(친구)들과’로서 학생들이 답사 활동 중에 서로 협력하고 소통한 경험을 추억하는 맥락에서 등장한 말이었다. 이는 본 답사 활동이 애초 의도한대로 협동 학습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는 방증으로 여겨진다.

빈도수 3위 키워드는 학생들의 대학 소재지인 ‘공주’로서, 이는 4년여의 대학 생활 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공간’을 자신의 ‘장소’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변화의 단서로 읽힌다. 장소는 그곳에 의미를 부여한

「사회과지리교육론」 답사 활동 자기 평가지 2015.04

조 구분: (2)조
 답사 주제: 제민천변(산천·계곡·변천·경관·특성)

답사 활동의 전체적인 만족도	매우 불만	1	2	3	4	매우 만족
1) 답사 수행 과정		1	2	3	4	5
2) 결과 정리 과정		1	2	3	4	5
3) 내용 발표 과정		1	2	3	4	5
좋았던 점	전반적으로 좋게 중간에 답사하는 것보다는 답사 후의 정리 과정이 좋았다. 제민천은 일년 내내 시원하며 아름다운 교육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특히 산천·계곡·변천·경관·특성에 관심이 생겼다.					
아쉬웠던 점	발표하기 너무 늦은 것만 아쉬웠는데 내용 정리하기 조금 어려워서 아쉬웠다.					
아이디어 제안	답사지를 방문 중이던 제민천변이 있어서 더 많은 곳을 방문할 것 같다.					

그림 7. 답사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사례

표 2. 답사 활동에 대한 조별 자기 평가의 결과

조별 주제	만족도 구분	전반적인 만족도	활동 과정별 만족도			평균
			조사	정리	발표	
1	공주 초등학교 학생들의 장소감 특성	5.00	4.75	5.00	5.00	4.94
2	학교 앞 제민천의 변천과 경관 특성	4.50	4.75	4.50	4.00	4.44
3	공주의 아름다운 골목길 선정	4.00	4.00	3.60	4.00	3.90
4	산성 전통 시장의 기능체 분포 특성	5.00	4.75	4.75	4.75	4.81
5	시내 중앙 대로변의 기능체 입지 및 경관 특성	4.75	4.25	4.50	4.50	4.50
6	공주와 주변 도시 간 공간적 상호작용 특성	5.00	5.00	5.00	5.00	5.00
7	공주의 역사지리적 변천 과정	4.00	4.50	4.75	4.00	4.31
평균		4.57	4.54	4.54	4.43	4.52

표 3. 자기 평가의 의견 진술에 나타난 공통 키워드

'좋았던 점' 진술에 나타난 공통 키워드	빈도수	'아쉬웠던 점' 진술에 나타난 공통 키워드	빈도수
의미 있는 과제	9	시간적 여유	3
학우(친구)들과	8	내용 전달	3
공주(G시 이름)	7	자료 제시	2
재미있는 경험	4		
즐거운 답사	3		
4학년	3		
직접 조사	2		
보람	2		

사람들에게 장소 정체성을 형성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가졌던 장소와 맺은 관계가 개인 정체성의 근원을 이룬다고 할 때(임은진, 2011, 226-229),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이른바, 장소 정체성의 내면화와 함께 공주에 대한 긍정적 장소감 형성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답사 활동이 학생들에게 있어 개인적, 지리 교육적으로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경험이었음은 각 조별 학생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 사례를 통하여 더욱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탐구 주제를 놓고 우리가 스스로 답사 준비, 답사 실행과 나름대로의 자료 해석 및 결론 도출까지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의미 있는 과제가 된 것 같다.” -1조 학생-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답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졸업) 후에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제민천을 알고 나니 4년여를 머물렀던 공주에 대해 애항심이 생겼고, 유의미한 과제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2조 학생-

“교대 4년 생활동안 첫 답사 과제였는데, 재미있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3조 학생-

“이제까지는 인터넷이나 서적에서 자료를 찾아 정리하는 과제를 주로 했는데, 직접 발로 뛰며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해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다. 정말로 아이들과 현장에서 (다시 실천)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과

과 함께해서 더 즐겁고 의미 있는 과제였다.” -4조 학생-

“사고의 프레임을 넓힐 수 있어 좋았다.” -5조 학생-

“공주의 한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충청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공간적 상호작용을 바라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6조 학생-

“공주의 아름다운 면을 알아봐서 좋았다.” -7조 학생-

여기에서 답사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이 개진한 소감에서도 자신들이 경험한 답사 활동의 의의를 잘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장소와 경관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다는(Pawson and Teather, 2002) 점은 지리 교육적 의미와 가치가 적지 않은 의견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예비 교사로서의 독특한 행동 정향도 여러 진술에서 확인되었다.

“...모두 함께 유의미하고 재미있는, 이제는 낯익은 길 한 번 더, 나에게 좀 더 중요해진 제민천의 존재...”

“사람들의 자취가 담겨 골목길, 걷는 만큼 보인다. 주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공주와의 새로운 만남...”

“...직접 발로 뛰면서 가설을 설정하고 직접 장소를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며 그 자료를 토대로 결

론을 내었던 과제는 처음이었다. ...과정이 하나하나 의미 있고 재미있었다. 과제가 이렇게 설레고 재미있었던 적은 드물었던 것 같다. 직접 발로 뛰며 얻은 자료를 분석해서인지 눈에 보이는 규칙이나 해석이 나올 때의 쾌감이나 성취감이 남달랐던 것 같다. 대학교 4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공주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가까운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정말 의미 있었다.”

“...직접 답사를 나가고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지리적인 분포에 대해 눈으로 확인하니 신기했다.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지리적 분포에 대해서 가르칠 때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일찍 이런 과제를 하고 또 공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도 남았다.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이 발로 뛰면서 학교 주변의 지리적 분포를 조사하고 스스로 확인하며 장소감을 형성하는 재미있는 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4년 동안 제일 재미있는 과제였던 것 같다!”

“이번 답사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까운 것에 대한 분석적 관찰에 있다. ...우리의 주변에 항상 존재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연구해보는 과정 자체가 진정 의미 있었다.”

“...대로변의 상가들을 낚낚이 파헤쳐 보는 작업을 하고나니 이제는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쯤엔 어떤 곳들이 있고 왜 여기 있는지가 저절로 떠오르게 된다...”

“...과제를 하면서는 이렇게 열심히 해 본 과제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 논문이라는 것인가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번 과제는...‘지리’ 영역에서 진정으로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정말 기억에 남는 학교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답사를 마치고 나니 낯설게 느껴졌던 중앙대로변의 여러 상가들이 나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교과를 통하여 배우고 가르치는 지식과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실 사이에는 부정합면 있고, 그것을 경계로 의미론적 간극이 존재하게 된다(류재명, 2002). 탈맥락화한 교과서에 기초하여 관념과 추상 위주로 이루어지는 지리 학습은 이러한 간극을 더욱 확대한다고 볼 때,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답사 활동이라는 점을 이상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소감은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상 공간에 대한 답사 활동이 학생들에게는 답사 활동의 지리 교육적 의의를 분명히 인식하고, 긍정적인 장소감과 장소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동료 평가에 나타난 답사 활동의 의의

동료 평가지는 발표 조의 답사 활동 전반에 대한 총체 점수와 항목별 분석 점수 척도를 비롯하여, 수치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발표 조의 답사 활동에 대한 장·단점 및 소감을 묻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그림 8). 동료 평가의 점수 결과는 학점에 실제로 반영되었다. 표 4는 학생들의 동료 평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에서처럼 답사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학생들이 각 조의 답사 활동 전반에 대하여 부여한 총체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13점, 항목별 분석 점수

「사회과지리교육론」 답사 활동 동료 평가지

2015.04

조 구분: (4)조
 답사 주제: 중앙대로변의 상가 분포 탐

총체 (holistic) 점수	1 2 3 4 ⑤
분석(analytic) 점수	1) 답사 수행력 1 2 ③
	2) 결과의 유의미성 1 ② 3
	3) 발표력 1 2 ③
좋은 점	시점들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일대일 방문이 가능으로 편리하게 편성한 점이 인상적이다.
아쉬운 점	시점들과 여객선 시점은 따로 방문을 해야 생각해보았지만 더 좋았을 것 같다.
미디어 제안	승인 관련단체 인터뷰를 해야 이점이, 여객선과 여객선 관련 업체도 방문하여 인터뷰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림 8. 답사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 사례

표 4. 답사 활동에 대한 조별 동료 평가의 결과

조별 주제		점수 구분	총체점수 (5점)	분석 점수			총점 (14점)
				답사수행력 (3점)	결과유의미성 (3점)	발표력 (3점)	
1	공주 초등학교의 장소감 특성		4.72	2.78	2.70	2.87	13.07
2	학교 앞 제민천의 변천과 경관 특성		3.70	2.70	2.43	1.83	10.66
3	공주의 아름다운 골목길 선정		3.78	2.48	2.26	2.39	10.91
4	산성 전통 시장의 기능체 분포 특성		3.96	2.38	2.29	2.63	11.26
5	시내 중앙 대로변의 기능체 입지 및 경관 특성		4.29	2.75	2.71	2.46	12.21
6	공주와 주변 도시 간 공간적 상호작용 특성		4.76	2.96	2.68	2.29	12.69
7	공주의 역사지리적 변천 과정		3.71	2.25	2.38	2.25	10.59
평균			4.13	2.61	2.49	2.39	11.63

는 3점 만점에 평균 2.50점, 전체 평균은 14점 만점에 11.6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다른 조의 답사 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켜보고 측정한 동료 평가의 결과가 표 2의 자기 평가 결과와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 주목을 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장소감 특성을 조사한 1조와 도시 간 공간적 상호 작용 특성을 조사한 6조의 답사 활동에 대한 평가 점수가 높고, 제민천의 변천과 경관을 조사한 2조와 역사지리적 변천 과정을 조사한 7조의 답사 활동에 대한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그러하다. 이는 답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 평가 결과가 높은 객관도와 타당도를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자기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료 평가에서도 학생들은 답사 활동의 개인적, 지리 교육적 의의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평가의 그것보다 더욱 객관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진술 2~3개의 사례를 조별로 제시해보기로 한다.

먼저 1조의 초등학교 장소감 조사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풍부한 자료를 제시한 점, 발표가 유창하게 이루어진 점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활동 과정과 결과가 매우 의미하였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인터뷰 내용까지 첨부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이

많이 보였고 자료 결과까지 다 분석해서 유의미한 조사를 한 것 같아 매우 인상적이었다.”

“발표가 매우 매끄럽고, 탐구 진행도 매우 잘 되었음.”

“설문 조사와 면접 등 다채롭고 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

2조의 제민천 조사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학생들의 대표적인 일상 공간의 하나인 제민천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제민천을 실제로 종단 답사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제민천에 대해 재미있으면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알고 간 느낌! 몰랐던 제민천의 모습을 많이 알고 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로 여겼던 제민천에 새로운 감정과 애정이 생기게 해주었다.”

3조의 골목길 조사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평소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골목길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점과 길에 대한 정의 및 범주화에 대하여 학생들은 색다른 느낌을 받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양한 공주의 골목길을 소개해주고, 문제점과 대안을 다양하게 보았던 것이 좋았다.”

“길에 대한 정의와 골목길을 조사한 분류 기준이 좋았다. 평소에 길에 대해 별로 생각을 깊이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길을 볼 수 있게 되었다.”

4조의 전통 시장 조사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업종별 분류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점, 분포 패턴을 그래프와 지도 등 시각적으로 잘 정리한 점에 대하여 호평하였다.

“업종 분포를 일일이 분석해 연결 짓고, 다른 시장과 비교하고 산성시장의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좋았다. 준비도 열심히 하고 노력한 점이 보인 훌륭한 답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장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많은 업체들을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표시한 점이 대단했다.”

5조의 중앙대로변 상가 조사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공간적 패턴을 체계적으로 보여준 점, 일상 공간에서 의미를 찾아 설명한 점, 그리고 SOLO라는 적절한 탐구 모형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평가하였는데, 5조의 조사 활동에 대하여 29명의 학과 학생 중 무려 22명의 학생이 의견을 제시할 만큼 높은 관심과 공감을 보여주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던 중앙대로에서 지리적 규칙을 알아볼 수 있어서 더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사실파악-패턴 파악-관계 탐색-외연 확장이라는 구조가 발표에 굉장히 적합했다는 생각”

6조의 도시 간 상호 작용 조사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풍부한 자료와 사례를 동원하여 설명이 이루어진 점, 특히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이룬 발표였다는 점에 대부분의 학생이 동의하였다.

“이제까지 발표한 조 가운데 가장 지리적인 해석

을 잘한 조 같다. 유의미한 조사를 한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새롭고 재미있었다.”

“나름의 그래프 해석과 결론, 원인 도출이 좋았다.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를 여러 가지 시각 자료로 제시해 발표가 재미있고 인상 깊었다.”

7조의 역사지리적 변천 조사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주의 역사지리에 대해 정리할 기회가 되었다는 점, 다양한 사료에 근거한 설명이었다는 점 등을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꼽았다.

“공주의 역사와 지리, 전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지루할 수 있는 주제를 다양한 제재를 이용하여 지루하지 않고 쉽게 풀어낸 것 같다. 재미있었다.”

결과적으로 이상의 동료 평가에 나타난 여러 내용은 답사 활동의 지리 교육적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학생들이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점, 자신들의 일상 공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의미를 반추할 기회가 되었다는 점, 나아가 공주에 대한 긍정적인 장소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리 교육이 학생들의 지리적 지식의 확장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가치적, 태도적인 면의 성장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할 때(임은진, 2011c, 226), 일상 공간에 대한 답사 활동은 그것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지리 학습에서 답사 활동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국내·외에서는 이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렇지만 국내의 경우, 주로 학습자들의 삶과 다소 유리된 문화 유적지나 학술적 장소에서 중등학교 학생이나 사범대학교 지리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지도안을 구현하려는 교수자 중심의 견학

적 답사 활동에 기초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답사 활동의 장소가 반드시 학교에서 먼, 학술적인 의미가 담긴, 혹은 대중들에 널리 알려진 곳일 필요는 없으며, 그것보다는 학습자들 자신의 삶이 영위되면서도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공간을 다시 한 번 살피고 그곳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활동이 지리 학습에서 추구하는 답사 활동의 본질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상 공간에 대한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탐구적 답사 활동에서 나타나는 실천적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지리 교육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답사 활동에서 나타나는 실천적 특성을 정리하면, 정보 수집의 방법으로서 설문지와 면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답사 과정에서 직면하거나 발견된 문제 상황에 대하여 기존의 지식, 새로운 아이디어, 상호 심층 토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발휘한다는 점, 아울러 유창한 설명력과 발표 역량을 보여준다는 점 등이다. 그렇지만 조사 결과를 정리함에 있어 지도나 도표보다는 텍스트 형식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수집된 정보를 시각·공간 자료로 변환하거나 가공하는 데는 다소 미숙한 측면도 발견되었다. 이는 답사 활동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대로 수집할 수 있도록 타당도 높은 설문지 작성 방법과 효과적인 인터뷰 기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정보 수집의 기본 도구로서 관찰이나 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을 비롯하여 도해력을 강화할 학습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답사 활동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자신들의 답사 활동 경험이나 결과를 초등 사회과 지리 교육에 장차 활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나 과제 활동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초등 예비 교사로의 독특한 행동 정향의 하나로 파악된다.

둘째, 학생들의 자기 및 동료 평가 결과, 자신들의 일상 공간에 대한 답사 활동이 학생들에게는 답사 활동의 지리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공

유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경험이 되었다는 점, 자신들의 일상 공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의미를 반추할 기회가 되었다는 점, 그래서 긍정적인 장소감을 내면화하고 장소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 공간에 대한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답사 활동은 그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개인적, 지리 교육적으로 큰 의의를 지닌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일상 공간에 대한 답사 활동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장소 정체성 강화의 효과, 교과 교육적 차원에서는 답사 활동의 지리 교육적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의 효과를 지니는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교육대학교 지리 교육과정에 답사 방법론을 다루는 내용이 더욱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본 논문은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일상 공간에 대한 답사 활동이 지니는 지리 교육적 함의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주

- 1) K. Humble은 영국 BBC 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Springwatch'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저명한 진행자로서 세계 여러 곳을 실제 여행하고 답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생동감 있게 설명하고 안내한 인물로 유명하다.

참고문헌

- 남상준, 1999, 지리 교육의 탐색, 교육과학사.
- 류재명, 2002, “도시 지리 교육에서의 학습 활동 개발에 대한 소론,” 지리과교육, 4, 한국교원대학교, 119-24.
- 류주현, 2004, “지리 교육과 교육과정에서 효과적인 야외 조사 교수·학습 방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2), 343-353.
- 류주현, 2012, “근대도시 대전으로의 답사 프로그램 개발

- 및 활용,”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2), 147-160.
- 박철웅, 2004, “실제 지형 연구를 통한 야외 학습 요소의 추출과 지도 방안,” 한국지형학회지, 11(2), 47-68.
- 박철웅, 2013, “지리 교육에서 체험 활동으로서 야외 답사의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163-177.
- 박철웅, 2014, “도시 답사에서 다감각적 경험을 통한 질적 접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2), 65-79.
- 박희두, 2006, “청주시 일대의 자연 지리 야외 학습장 개발,” 한국지형학회지, 13(2), 1-11.
- 서태열, 2005, 지리 교육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송언근, 2015, “지리 탐구적 답사를 위한 연구 과정의 구성 -지리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3(3), 71-86.
- 송언근, 2016, “사전 조사가 탐구적 답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2), 1-16.
- 안재섭, 2013, “지리-역사 장소 답사를 중심으로 한 학습 내용 구성 및 평가 방법,”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1), 61-73.
- 오선민·이종원, “2014, 중등학교 지리 답사 연구: 목적, 유형, 계획과 제약 요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1), 111-130.
- 윤옥경, 2009, “장소 중심의 답사를 통한 지역 이해의 가능성 탐색: 강원도 탄광 지역 답사 실행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9(4), 199-214.
- 이간용, 2014, 재미있고 의미있는 지리 학습의 설계, 교육과학사.
- 이건학, 2014, “스마트폰과 지리 공간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지리 답사,” 국토지리학회지, 48(2), 257-277.
- 이경한, 2016, 사회과 지리 수업과 평가, 교육과학사.
- 이민부·김정혁·최훈, 2014, “자연 지리 답사를 통한 지역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미호천 유역 하천 지형을 사례로-,” 한국지형학회지, 21(4), 53-67.
- 이의한, 2014, “화천·양구의 야외 답사 코스 개발: 지오파크를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21(1), 51-61.
- 이의한, 2016, “인제의 야외 답사 코스 개발 -지오파크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6(2), 99-110.
- 이종원, 2011, “도해력 다시 보기: 21세기 도해력의 의미와 지리 교육의 과제,” 한국지리환경학회지, 19(1), 1-15.
- 이종원, 2014, “영국 초·중등학교 지리 과목의 야외 조사 활동 분석,” 비교교육연구, 24(4), 1-27.
- 이종원·함경림·김보경, 2007, “워크북 스타일 답사 자료집의 개발과 적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5(4), 345-361.
- 임은진, 2011a, “지리과 야외 학습 모델 개발 및 적용,”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4), 39-51.
- 임은진, 2011b, “사회과 야외 학습에 대한 학습자 태도 연구, 사회과교육,” 50(4), 215-226.
- 임은진, 2011c, “장소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 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25-239.
- 정문성·김동일, 1999, 협동 학습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 조철기, 2014, 지리 교육학, 푸른길.
- 허은경, 2002, “지역 조사 프로젝트 학습의 설계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2), 61-81.
- Bailey, P., 1974, *Teaching Geography*, Newton Abbot: David and Charles, UK.
- Balchin, W., 1972, *Graphicacy, Geography*, 57.
- Bland, K., Chambers, B., Donert K., and Thomas, T., 1996, Fieldwork, in Baily, P. and Fox, P.(eds), *Geography Teachers's Handbook*, Sheffield: The Geographical Association.
- Daugherty, R.(eds), 1989, *Geography in the National Curriculum: A Viewpoint from the Geographical Association*, Sheffield: The Geographical Association.
- Lidstone, J., 1988, Teaching and learning geography through Fieldwork, in Gerber, R. and Lidstone, J.(eds), *Developing Skills in Geographical Education*, Brisbane: IGUCGE, 53-59.
- Parkinson, A., 2009, Fieldwork-an essential part of a geographical education, Geographical Association, UK, 1-6, [http://www.geography.org.uk/resources/fieldwork/ga_fieldworkentitlementguidancev2\[1\]](http://www.geography.org.uk/resources/fieldwork/ga_fieldworkentitlementguidancev2[1]).
- Pawson, E. and Teather, E. K., 2002, Geographical expedition: Assessing the benefits of a student-driven fieldwork method, *Journal of Geographical and Environment in Higher Education*, 26(3), 275-289.
- Sauer, K. O., 1956, The education of a geography, *AAAG*, 46(3), 287-299.

WASSCE/WAEC, 2015, Geography syllabus 2015-2016,
<http://www.larnedu.com/wassce-waec-syllabus/>.

Woongjinro, Gongju, Chungnam-Do 32553, Korea (e-
mail: kylee@gjue.ac.kr)

교신: 이간용, 32553, 충남 공주시 웅진로 27(봉황동), 공
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이메일: kylee@gjue.ac.kr)
Correspondence: Khan Yong Lee, Dept. of Social Stud-
ie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7

최초투고일 2016. 11. 18

수정일 2016. 12. 14

최종접수일 2016. 12. 27